제 998 호 1991년 11월 24일 창간 2011년 2 월 27 일

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1년도 표어
다음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마28:18-20)
행동지침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발 행 · 발 행 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 룻 기

쉴 수 없는 사랑의 마음
(룻기 3:1-18)

박노철 목사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표현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선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 존재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하고 영원한 것입니다만 성경은 친구 간의 사랑, 사제 간의 사랑, 부모형제 간의 사랑, 또한 남녀 간의 사랑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사랑의 능력

사랑은 신비입니다. 사랑은 묘약입니다. 사랑은 능력이고, 사랑은 회복이며, 사랑은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은 황폐해지고,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회복되고 행복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 그 분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치유와 변화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능력이고 신비이며 부흥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전 13:7)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지혜가,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 소망이, 또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2. 룻과 보아스의 사랑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났을 때는 보리추수 때였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단 몇 주에 불과했습니다. 한 사람은 주인으로 한 사람은 종도 아닌 걸인으로 그렇게 만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타작을 마치는 날 밤이 늦도록 먹고 마시고 잔치를 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그 날 밤을 위해 룻이 보아스를 얻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것을 꼼꼼이 일러줍니다(3-4절). 룻은 그 밤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나 보아스는 기업 무를 자로서 룻의 남편이 되기에 마땅한 대상이었습니다. 룻은 법이 정해주고 성경이 인정해준 사람에게 겸손한 프로포즈를 한 것입니다. 이에 보아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한 모든 것을 다 행하리라"고 하며 룻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관계는 성도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해줍니다. 우리는 룻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마 11:12)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특히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달려간 사람들이 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할 때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룻이 보아스와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고, 축복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 주님과의 사랑으로 인해 축복과 은혜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Heart of Love That Cannot Find Rest
(Ruth 3:1-18)

The description of who or what God is appears many times in the Bible. But nothing describes God's true character and nature more clearly than the statement, 'God is love.' God's complete existence is saturated with love. If God is love, then we who have been created in His own image must also love.

Although God's love is so sublime and eternal that we cannot compare it with all the love in this world, we can find that the Bible treats love extensively between friends, between master and pupil,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between brothers and sisters, and between men and women.

1. The power of love

Love is a mystery. Love is an infallible remedy. Love is power, recovery, and the reason for our existence. Without love, we become devastated, and because of love we recover and are happy. All the beautiful things in this world are filled with God's love. God is love, and there are freedom, change, and recovery in the place where God's love exists. The love you cannot imagine is the greatest power, mystery, and revival.

The Apostle Paul said, "It always protects, always trusts, always hopes, and always perseveres" (1 Corinthians 13:7). The power by which we can bear everything, the wisdom by which we can trust everything, the hope by which we can desire everything, and the perseverance by which we can endure everything are given as a gift to the person we love.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us to recover 'love.'

2. Ruth's and Boaz's love

Ruth and Boaz met at the barley threshing floor. They had known each other only a few weeks. When they first met each other, Boaz was like a master, and while Ruth was not quite like a servant, she was like a beggar.

In those days in Israel's society, when people finished threshing at night, it was customary for them to eat and drink until late, and throw a party. Naomi meticulously told Ruth how to meet Boaz that night (vv. 3-4). During the night, Ruth was to propose to him. This might seem to be a bit of a problem morally, but it was clear that Boaz was a target to be Ruth's husband, because of his position as a kinsman-redeemer. Ruth proposed to the man who was appointed by law and recognized according to the Bible. Following this understanding, Boaz responded to her, "Don't be afraid. I will do for you all that you ask." And he received her act of love.

The relationship between Ruth and Boaz describes the relationship between Jesus Christ and Christians. We must have this kind of initiative like Ruth. Jesus said,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and forceful men lay hold of it" (Matthew 11:12). When we read the Bible, especially the Gospels, we find that those who actively visit their parents experience even greater miracles.

My beloved Christians!

God never rests until we are saved, until his will is accomplished, and until we are happy inside Jesus' grace. Would you really like to be happy? Confess your love to Jesus! Take initiative! And trust in His love! Just as Ruth was saved by Boaz' love and blessed,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be blessed by God's love and enjoy His grac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제43회 국가조찬기도회 헌신예배 / 세계평 · 화음악회

외국귀빈 환영만찬 : 3월2일(수) 오후5시30분, 만나 홀
국가조찬 헌신예배 및 세계평 · 화음악회 : 오후7시-8시30분, 본당

2006년 세계평 · 화음악회 전경

나라와 국민화합, 경제번영 그리고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제43회 국가조찬기도회 헌신예배 및 세계평 · 화음악회가 서울교회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오후5시30분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오후7시에는 국가조찬기도회 헌신예배(설교: 박노철 목사)와 세계평 · 화음악회로 마치게 된다. 세계선교와 복음에 앞장서는 우리교회에서 귀한 주님의 사역을 위한 세계평 · 화음악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린다.이날 행사로 중, 석식 제공은 하지 않는다.

다락방장 · 부다락방장 교육-박노철목사인도

3월2일 수요1, 2부 예배 후/ 웨스트민스터홀

우리 교회는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두 그룹인 대그룹과 소그룹의 활성화를 위하여 박노철 목사의 인도로 3월2일(수)부터 매주 수요1부 예배 후 12시10분 부터 1시10까지 101호(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교구일꾼 수련회를 시작한다. 첫날인 3월 2일(수)에는 12시10분부터 3시까지 교육을 실시(중식 1시10분~45분)한다. 수요 2부예배 후에도 모인다. 모든 교구일꾼들, 특별히 다락방장과 부다락방장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란다.

안민 교수 초청 특별금요기도회

3월4일(금) 오후 8시20분/ 본당

가난과 역경을 이기고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장로로, 찬양 사역자로 그리고 고신대 부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안민 교수 초청 특별금요기도회가 3월4일(금) 오후 8시20분 본당 2층에서 있게 된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란다.

제1, 2 스데반회 연합수련회

3월 1일(화) - 아가페 타운

제1, 2 스데반회(회장: 김진환, 오치열 집사) 연합수련회가 3월1일(화) 아가페타운에서 열린다. 우리교회 박노철 목사가 강사로 서며 오전7시 교회에서 출발한다. 부부동반으로 스데반 회원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란다.

가수 김세환 집사의 특별찬양도 있다.

공군사관학교 제 59기 졸업 및 임관감사예배

교육1국 · 사랑부 겨울성경학교

제7기 설교사역 도고교육 수료식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2월6일(주일)부터 27일(주일)까지 4주간 진행되었던 제7기 설교사역도고교육 수료식이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열린다.

수료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창숙, 곽태수, 김경희7, 김양숙, 김영숙10, 김정제, 김진희, 백영자, 송행희, 이상섭, 이영희1, 이은희7, 장명순, 장영순, 장호림, 전연수, 최미아, 최성희1, 현승희 (이상 19명)

청년1부 겨울수련회

2월28일(월)-3월1일(화) 아가페타운

청년1부 겨울수련회가 28일(월), 3월1일(화) 양일간 아가페타운에서 열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를 주제로 박노철 목사, 장석남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진행하게 된다.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 6:4-9, 마 28:18-20)를 주제로 시작된 2011년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가 청년1부 겨울수련회를 끝으로 은혜롭게 마무리되도록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서울 음악교실 개강

3월6일 (주) 오후 1시30분, 601호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을 훈련시키는 서울 음악 교실이 다음주 3월6일 오후 1시 30분에 601호에서 개강한다. 6주코스로 발성법, 호흡법 및 음악 이론 전반을 공부하게 된다.

나눔의 집 기증품 기다려

우리교회 제1권사회(회장:김예환 권사)에서는 지하3층에 나눔의 집을 개설하여 상시운영하고 있다. 나눔의 집은 성도들이 기증한 의류를 비롯한 각종 생활용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동안 기증받은 물건이 많이 소진되어 지금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도들 가정에 현재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의류 등을 교회에 기증하면 나눔의 집에서 한 점당 1,000 원에 판매되고 수익금은 선한 일에 사용된다. 성도들의 많은 기증을 기다린다.

한 가정 한 선교사 후원자 명단

강석근 김경복(지성표) 김선자 김승록(전미경) 김영희 김재근(안분선) 김정수(김대수) 김주현(권은주) 김혜수(윤 운) 민혜정 박은진(이범주) 박정선 서양지 양숙란 양옥자(김진한) 오세창(김유정) 오은경(김명옥) 우정균 우정연 이광배 이지은 이효민(이형진) 장성자 정승자 정을순 주화인 지상훈 최원석(박길희) 최주하 최현철 탁경준 마리아전도회 베드로선교회 사라전도회 · 김종자 제1권사회

나의 하나님

입학을 축하한다 주원아!

김희경 집사(11교구)

지금까지 주원이를 인도하시고 길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잘 자라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빠인 민수가 매일 자기 전에 예쁘고 똑똑한 여자동생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초등학생이 되다니…

워킹맘인지라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하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주님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서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어린 주원이를 보면서 세상적인 소망을 기대하며 "넌 커서 무엇이 되겠냐"고 물으며 어른들의 바람을 은근히 강요하기도 했지만 찬양대에서 세상에서 가장 기쁜 표정으로 찬양드리는 모습과 주일 저녁 찬양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해 '저녁예배 하루 빠질까' 하는 유혹을 떨쳐내게 하는 주원이를 보면서 주원이를 인도하시는 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 합니다.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주원이에게 바라기는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늘 기도하며 학교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듬뿍 뿜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원이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양육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길러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원이의 가는 길에 늘 동행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주원아~ 사랑한다!

선교사 도고팀 탐방 2 – 러시아

러시아에 하나님의 영광이!

화요일 오전 6시, 아직 동도 트기 전인데 104호실에는 10여 명 남짓, 멀리 러시아의 김영호, 서향정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 2008년 선교사 파송과 함께 출발한 러시아 선교도고팀이다.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곧바로 시작되는 이 모임에는 매주 10-20명이 모인다.

김영호, 서향정 선교사는 세 명의 자녀와 함께 새벽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출발하여 파송받은 지 2년 되던 2009년 6월에는 노브고르드 장로교회를 창립하였다. 대도시 쌩뜨뻬쩨르부르크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으나 형편이 열악하고 척박한 외곽으로 깊이 들어가 정착한 것이다. 노브고르드는 과거 번화했던 도시였으나 현재는 고려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타지인에 배타적인 성격이 짙은 소도시이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지역이고, 노브고르드 장로교회가 이 지역의 첫 교회가 되었다. 이들은 특히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말씀 교육을 전하며 주일이면 식사를 대접하고 활발한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0년 하반기부터는 현지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 프로그램 OHANA(오하나)를 운영하면서 언어교육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예배 처소의 수용능력은 이를 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회의 부흥과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노브고르드 전 지역을 복음화 하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다.

2010년 2월, 이종윤 목사님과 러시아 도고팀으로 구성된 12명이 현지를 방문한 적이 있다. 두 선교사님의 열정적인 선교활동 못지않게 세 자녀 또한 통역과 인도, 안내 등 달란트대로 작은 선교사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 깊은 감명을 받고 돌아왔다. 선교지를 다녀온 이후 더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가지고 세세히, 더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여름에는 선교사님 가족이 3개월 동안 방한했는데, 도고 팀원들은 물심양면 이들을 섬기며 저마다 초대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모두가 하나 되는 기쁨, 강한 결속력을 경험하며, 초대교회처럼 가진 것을 나누고 나눈 것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것이다. 큰 사랑과 위로를 받고 돌아간 선교사님들은 복음이 확장되는 기쁜 소식을 연이어 전해왔다.

고려인 협회장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그 하나이다. 가족 중 한 소녀가 세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는데, 이 자매를 통해 고려인 관계자들은 기독교의 세례와 장례 일체의 예식을 처음 지켜보게 되었고, 이것이 뿌리깊은 러시아 정교회의 배타적인 편견과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4년째에 접어드는 러시아 선교와 함께 도고팀의 기도도 무르익고 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겪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며, 장차 현지인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나소정 집사(편집부)

3.1절 기념 시

죽으면 죽으리라

해마다 3월이 오면,
우리는 흔들고 싶은 깃발이 있다.
모국어로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다.
죽어서 영원히 살아남은 이들을 위해
기도의 성을 쌓고 싶은 맥박이 있다.

92년전 오늘,
일제의 쇠사슬을 끊으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의 신앙으로
교회당마다 빗장을 풀고
만세로 나라를 지켰던
기독인들의 함성이 들려온다.

낮의 통행금지 속에 갇혀
가슴을 움츠리며 살아왔던
식민지의 아침,
총검으로 정의를 겨냥했던
무리들은 가고,
역사는 언제나 진실을 증언했다.

이제 빼앗겼던 우리의 땅, 우리의 하늘,
우리의 자존, 우리의 의지를
황지의 풀잎처럼 일으켜 세워
다시는 어둡고 부끄러운 역사를
살지 않아야 한다.

이 땅에 다시는 타인의 손길이,
이 땅에 다시는 잔악한 발길이,
끝내는 슬픈 전흔의 아픔도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의 미래, 그 가치와 자긍을,
소중히 지키며 살아야 한다.

지금은 3월,
하늘 같은, 불기둥 같은 감격으로
승리의 노래만을 부를 때가 아니라
진실로 자유가 생명보다 귀한 교훈을,
망국의 회한을 되새겨 보며
항상 눈동자 같이 깨어 있어야 한다.

92주년 3.1절에 부쳐
권용태(시인 / 2교구)

열린프로그램을 시작하며

배우고 익히는 성도들

김광신 장로 (교육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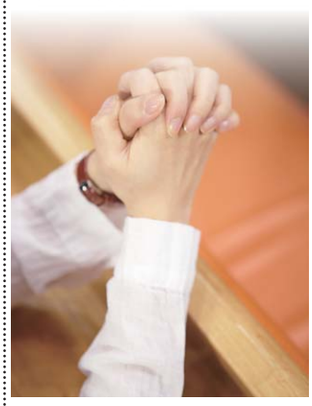
서울교회의 모든 성도들 특히 섬김위원들은 배워서 남 줘야한다. 금년에도 전반기 교육 프로그램이 우리들 앞에 열려있고 각자의 적성과 달란트에 맞는 교육 받을 기회가 열려있다.

다락방장은 교구일꾼 교육에, 교사는 교사양성반에 찬양대원은 찬양대양성반에 반드시 거쳐야 한다. 봉사할 믿음만 가지면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최소한의 자격기준이 모든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도들도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평신도 프로그램에 동참하여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배워서 남주는 일을 해보는 감격과 기쁨이 나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마음의 문을 열어보자.

2011년은 서울교회의 20살되는 청년의 해이기에 더욱 배우고 익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

특례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우리가 돕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 )성도님 가정의 특례수험생 ( )을 위해 기도합니다."

약 20명의 올해 수험생 어머님들은 서로 자녀들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고등학교 2, 3학년 과정에 잘 적응하기를, 또 7월부터 있을 대학입학 전형에서 원하는 대학에 무사히 합격하기를 뜨겁게 기도합니다.

작년 9월말 수요일 1시부터 606호에서 시작한 이 모임은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비교적 여유로이 고등학교를 다니다 갑자기 국내로 온 고교생 자녀들은 일반적인 고3수험생들과는 달리 다른 방법과 형태로 단기간에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 압박으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가 심하고 따라가기가 버거워하곤 합니다. 또 이들만이 경쟁하는 특례대입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미리 들어온 사람들 보다는 이곳 정보에 어둡고, 잘못된 입시정보에 시간을 보내기도 하며, 교회를 못 정해서 여러 달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체험한 어느 70인 전도대원의 제안으로 우리는 작년에 이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교회에 출석하든 비신자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분들에게 우리가 가진 학업 정보와 경험, 무엇보다 서울교회에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이 모임을 꾸준히 알려, 안심하고 자녀들 교회에 정착시키고 일상생활과 교회생활에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미 귀국 하기 전 우리 기도모임이 알려져 귀국 후 곧바로 서울교회를 스스로 찾아온 가정도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재작년에 자녀가 특례 입시를 마쳤지만 일부러 참석하여 초기에 학교생활을 적응하는데 큰 도움되는 학원과 학업정보를 자세하게 안내해 주어 참석한 이들이 크게 고마워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해외 고등학교 수험생을 가진 천여 가정이 귀국한다고 합니다. 이중 많은 가정이 우리 교회가 위치한 대치동 지역으로 올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들에게 도움 주고자 합니다. 8명의 특례수험생 전원이 작년 좋은 소식을 기도하는 여기, 어머니들에게 들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올해 귀국하는 특례수험생 어머니, 우리가 돕겠습니다.

– 전하미 권사(9교구)

겨울 수련회 초대의 글

예수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최유현집사 (청년1부)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깊이 와 닿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몸이 병들고 아픈 것에는 예민하지만, 영혼이 병들어 가는 것은 잘 알아차릴 수가 없으며, 그러다 보면 영혼은 심하게 병들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러 버린다는 내용의 이 말씀은 저에게 작은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모른 체 하루, 한 주, 한 달을 살아갑니다. 영혼의 갈급함에 집중하기 보단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 중에 누군가는 지쳐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위로 받고 싶을 것이며, 그 무언가 매어 있는 부분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개개인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고, 만져주실 분도 분명히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확신하기에 잠시지만 시간을 내어 온전히 우리의 영혼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저는 자신 있게 청년1부 모든 성도님들께 권합니다. 다 함께 수련회에 참여하여, 좀 더 깊이 있는 말씀과 기도, 찬양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를 위하여 저희 청년1부는 목사님과 부장, 차장집사님, 또 임원들과 조장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주제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부터 3월 1일 아가페 타운에서 열릴 이 수련회에 청년1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정

■ 이사: 5교구 김태원 성도 조상희 성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마젤란아파트 1101동 1206호

■ **주간 식당 봉사:** 엘리야선교회(2.27) 모세선교회(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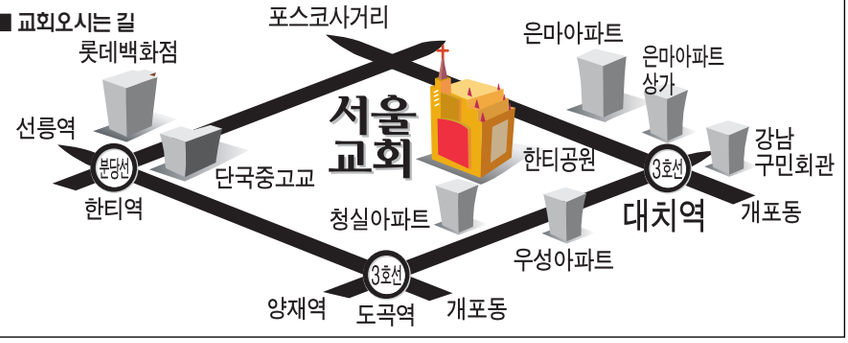
■ **금주의 식사제공:** 하인선 장로 남태순 권사 가정
남태운 집사 이동귀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교구일꾼수련회(3월2일 1,2부 수요예배 후)가 다락방 사역 부흥의 비전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2. 스데반회 수련회(3월1일), 청년1부의 수련회(2.28–3.1)를 통하여 중직들과 젊은이들이 시대를 변화시킬 거룩한 영적 영향력으로 무장되게 하소서.
3. 새학기를 맞아 진급/진학하는 다음세대 어린이, 젊은이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 그리고 만남의 복을 내려주소서.
4.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올려드릴 나라를 위한 기도에 귀기울여 주시고, 참석하는 위정자들과 성도들에게는 말씀대로 정치하고 행동하는 신앙의 결단을 허락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 일 예 배	Ⅰ부	오전 9시
	Ⅱ부	오전 11시 20분
	Ⅲ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Ⅰ부	오전 11시
	Ⅱ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